

가금협회와 부화협회의 통합 움직임

김 영 환

<한국유리브리드전무>

가금협회와 부화협회가 각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양협회를 통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이 명예로운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만이 남아있는 점이다.

양 협회가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간 양적 성장에 치우쳐 발전되어 온 한국양계계가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는 70년대에 차분한 기반을 다지는 질적성장으로 매진하여야 하는 명제를 놓고 뜻깊은 결합에 합의를 보았다는 뉴스는 우리 양계가로 하여금 기쁨을 금치 못하게 한다.

사실상 양 협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원의 구성 범위가 다를 뿐이지 「한국의 양계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과학적 기술을 교환 촉진하고, 각 회원 상호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데는 양 협회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양 협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계획중에 있는 일련의 사업들, 초생추의 생산조절사업, 양계통계조사사업, 기술지도사업, 홍보출판사업, 등록사업, 유통소비개선사업 등이 중복되거나 깊은 유기적 관련을 갖지 못한채 제각기 두개의 협회에 의해 계획되고 실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연관 사업들이 하나의 강력한 협동조직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계획되고 실천될 수 있었던들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이제 양협회의 결합을 위한 준비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통합 준비위원으로 가금협회 측에선 김영희, 김현배, 박도현,

부화협회측에선 강금노, 김원복, 민덕기씨의 이상 6인이 선출되어 그간 수차의 회의를 거쳤고 세부적인 면에서의 상호 의견이 신속히 합의된다면 3월중에는 통합이 완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협회의 통합은 “결합” 그 자체만으로 벌써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양계인의 대외적인 힘의 강화, 양 협회 조직의 상호보강으로 오는 상승효과와 과감한 협회운영이 기약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가금협회와 부화협회의 결합은 양자가 상호의 이해를 초월한, 오직 양계인의 지성에 입각한 명예로운 결합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금협회를 양계가들의 권익을 위한 협회라고 할 때 부화협회는 양계가들에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는 부화인들의 협회라는 입장에 설수 있다. 일례를 들어 부화인들이 초생추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책정하고자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양계인의 협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호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협동조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이해를 넘어 우리 대한 양계의 앞날을 위한 대의에서 뭉치려 한다. 앞으로 통합될 협회는 어느 한 부분에 결코 편중되지 않는 연합체적인 공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고 꾸준히 상호 이해하는 협동조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조직을 통한 협동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을 섬기는 협동만이 진정한 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